

송준영 시인과

禪詩 깊이 읽기



14. 마음 가지고 오너라

달마와 전법제자인 혜가(二祖慧可 487-593)와의 선문답이다.

달마 대사에게 혜가가 물었다.

“부처님의 법인을 들려주십시오.”

“부처님의 법인은 남에게 들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네.”

혜가가 다시 물었다. “제 마음은 편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발 제 마음을 진정시켜 주십시오.”

“그래, 마음을 가져오너라, 그러면 내 편안하게 해주지.”

“마음을 찾았으나 찾을 길이 없습니다.”

달마가 말했다.

“네 마음에 이미 진정한 평화를 주었네.”

(선문염송) 제3권, 100칙 ‘법인’

이것이 우리의 사유를 끝없이 비상시켜 고독하게 하고 동시에 활활하게 하는 현재 조사선의 전통, 그 시작이다.

이 선화를 살펴보면, 제1조 보리달마 2조 혜가로 이어지는 부정적이며 역설적인 선문답의 전통이 된다.

혜가가 애써 찾고자 한 마음은 자성인 참마음(真心)이 아니라, 수초와 같이 일렁이는 중심의 응용인 마음인 것이다.

‘참마음’은 생각하는 대상 아닌 주체 그 자신 선시의 ‘反常合道’ 숨겨 능수능란하게 사용

바깥 경계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되는 깜박이는 마음을 찾는 것이다. 자성인 진심은 늘 고요하며 어디든지 그대로 있다. 중심의 변화는 없다.

이 참마음은 생각하는 대상이 아니라, 생각 그 자체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체 그 자신이다. 그래서 이것을 찾고자 한다든가 어떻게 하고자 하면 이미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 변화하므로 참마음일 수 없다.

그래서 진심이 진체(眞體)다. 곧 마음은

없다. 그래서 “마음을 찾았으나 찾을 길이 없습니다”(覓心了不可得)라고 한 대답에서 이미 혜가는 자기도 모르는 순간 마음을 찾는 행위를 하고 있다 할 것이다.

바깥 경계에 흔들리는 마음으로 참마음인 자성을 찾았음이 아니라, 자성과 영회된 순수진공 상태의 행위로 다음에 이어지는 “네 마음에 이미 진정한 평화를 주었네”(與汝安心竟)하는 달마의 말을 듣는 순간, 울타동시(喞喞同時)가 되어 활연돈오(豁然頓悟)한다.

위의 선화에 대하여 뒷날 한 선장이 율

위의 계승에서 3행은 ‘아무 일 없었다. 아무 일 없었다’를 연발하고 있다. 무슨 일이 있었으면 어떻게 하나 가슴 졸인다. 특별한 일이라 바로 평상심에서 벗어난 마음의 작용이어서 진짜로는 별로 특별할 것이 없다.

다음 4행 “구하기도 찾지도 않고 마음마저 편치 않았네”는 ‘반드시 구하였고, 찾았고 드디어 마음이 편하여졌다’의 역설적 반어법이다.

찾아서 마음이 편하여진 것은 본래 그대로 그 자리를 떠나 있지 않은 진여자성을 찾는 것일 뿐이다. 우리의 견해로는 ‘구하고 찾아야 다소 위안을 얻게 되니 마음이 편하다’로 읽히지나 사실 ‘구하려 해도 구할 수 없고 찾으려야 찾을 수 없으며, 마음이 편해지려고 해도 편하지 않다’ 함은 바로 자성인 주체와 꼭 맞게 포개어 만난다(領會는 뜻이다.

곧 일체의 진리를 안과 밖을 꿰뚫어 보아 이 이렇게 표현됨이 당연한 것 아닌가. 이 당찬적인 모순적 어법은 선사들이 이 원적인 상대세계에서 그들이 보았던 일원적인 세계관을 표현하는데 사용한 주된 선시의 모순적 수사법이다.

이들은 일상적인 것을 비틀고 돌리고 옹호시켜 다른 수승된 일원론적 세계관을 보여준다. 곧 선시의 반상합도(反常合道)의 숨겨 능수능란하게 사용하는 데, 이것은 우리를 더 시원한 세계로 몰아 넣기에 족하다.

은 계승을 읽어보자.
2조가 소림에서 있던 날
二祖當年立少林
뜰에는 눈이 쌓여 허리에 닿았었네
滿庭積雪到腰深
두 손은 가슴에 모으고 아무 일도 없었으니
叉手當胸無一事
구하기도 찾지도 않고 마음마저 편치 않았네
不求不覓不安心
-죽암규



사찰음식의 모든 것

정산 스님 신촌 대표, 동산불교대 사찰음식학과장

국수원밥송이

오늘은 스님들이 너무도 좋아해 입가에 미소가 띠는 ‘승소(僧笑)’, 즉 국수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국수는 BC 6000~BC 5000년경에 이미 아시아 지방에서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오래 전부터 국수를 만들어 먹었으나, 밀의 생산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상용음식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메밀국수 스님들이 매우 좋아해 ‘僧笑’라 불러
칼국수는 여름 냉면은 겨울철 별미로

지머리 옥수를 섞어 식혀서 만든 냉면을 만들어 먹었고, 사찰에서는 냉면 대신 흰 콩과 흰 깨를 갈아서 만든 콩 냉면에 밀국수를 말아서 먹기도 했습니다.

강원도나 북쪽의 사찰에서는 메밀가루와 녹두녹말을 섞어서 반죽해 국수를 부어 국수를 만들어 먹었으나, 밀의 생산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상용음식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간장을 곁들여 먹기도 했는데, 시원한 국수에는 사찰에서 사발하거나 묵묵히 하는 날 흔히 만들어 먹었습니다. 스님들 대부분이 받은 한 가득 거뜬히 먹을 정도로 국수를 좋아해 ‘승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면 요리에는 온면(국수장국), 냉면, 비빔국수, 칼국수, 메밀국수 등이 있습니다. 궁중에서는 백면(白麵), 메밀국수를 가장 으뜸으로 쳤다고 하고, 국물은 광고기를 삶은 옥수를 넣습니다. 여름에는 동치미국과 양



국수원밥송이

재료: 밀가루, 간장, 가래떡, 쌀밥, 애호박, 석이버섯, 표고버섯, 다시마, 무, 깨소금, 참기름

- ① 표고버섯, 다시마, 무를 넣어서 센 불에 끓이다 약한 불로 천천히 달여 국수물을 만든다. 간장으로 간을 해준다.
- ② 칼국수는 뜨거운 물에 반죽을 해서 조금 시간을 두고 숙성시킨 다음 곱게 칼국수를 썰어서 가래떡과 함께 국수장국에 넣어서 한소끔 끓인다.
- ③ 애호박을 채 썰고 석이버섯도 뜨거운 물에 담가서 잘 손질한 다음 곱게 채 썰어서 참기름, 소금, 간장으로 간을 한다.
- ④ 떡과 국수를 그릇에 보기 좋게 담고 그 옆에 쌀밥을 담은 다음 애호박과 석이버섯을 곁들여 올려낸다.

공광규 시인과 시집 즐겨 읽기

밤 미시령
고형렬 | 창비 2006 | 6천원

불교적 제재로 빛은 한쪽의 그림

고형렬은 1954년 강원도 속초에서 태어나 1979년 <현대문학>에 ‘장자’ 등이 추천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지금까지 <대청봉 수박밭> <해청> <사진리 대실> <성애꽃 눈부처> <김포 운호기근집>에서와 장시집 <리를 보아>, 동시집 <행을 들고 자는 언니>를 발간했다.

그는 최근 시집 <밤 미시령> 후기에 “나의 시들은 나의 시의 징검돌이 되기를 꿈꾼다. 기포와 메타포로 가득한 세계에서 나는 아직 시의 길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시력 30여년이 되어가면서 ‘시의 길을 찾지 못했다’는 시인의 고백은 시의 경지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시인들을 대신하여 말해 주는 것이다. 이전 시집들에서 불교적 제재를 시

에 끌어왔던 고형렬은 <밤 미시령>에서도 ‘개금불사’ ‘청화’ ‘젓’ ‘나옹’ 등의 불교 제재 시를 등재하고 있다.

발단에 이렇게 써어 있다. “부처님 복장을 해야 하므로 잠시 고향을 떠났습니다.” 세로 수승을 입힌 부처님은 화상을 입은 듯, 손굽도 눈도 지워져 온몸이 성한 곳이 없을 듯. 고향을 벗쳐드리려면 이달 28일이 되어 한다. 숨소리 없는 한지 속에 계신 부처님을 향해 소년은 습다 뱉어내고 이저지 곁에 붙어 합장을 했다.

이주 오래된 부처님도 휴가사다. 문밖 400년 된 느리나무에서 매미 울음이 여름을 맺는다. 세상이 환해질 줄 창이 날이 지 남았다.

- ‘개금불사’ 전문

시인은 강화도 전등사에 갔다가 개금불사 중인 부처님을 만난 경험을 한 쪽의 그림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화자는 하얀 한지 곶감로 가려 놓은 부처님 얼굴을 보고 세상이 다 돌아가신 것 같았

다고 부정적 감정을 확장하며, 새로 수승을 입힌 부처님이 화상을 입거나 손굽과 눈이 지워져 성한 곳이 없다고 대상을 부정적으로 비유한다.

대상을 부정적으로 언술하는 것은 독자에게 감정의 충격을 더하기 위한 시적 방법이다. 개금불사 기간을 오래된 부처의 휴가 기간으로 보는 시인의 발상이 새롭다.

‘청화’는 오십 육년 간 하루에 한 끼 공양을 하며 수행을 한 실제 인물을 제목으로 한 시다. 화자는 “하루 한 끼만 받고 금금했다/ 그대 작은 신발, 만지고 싶다”고 하여 석가가 열반한 며칠 후에 장례식에 도착한 제자 가섭에게 정진을 하라는 의미로 보여주었던 발을 환기시키고 있다.

다음 시는 고려의 선승 ‘나옹’을 제목으로 하여 쓴 시다.



승복을 벗고 목탁도 버리고 저 자라고 싶은 대로 파동 머리카락과 수염 어느새 백발 쪽박 찬 저 지저들보다 내가 나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소 공양을 받으며 만인을 내려다보며 내 두드린 목탁은 순 거짓이었소 오늘 천천히 보니 저 하늘에는 그들이 없구나 그저 푸른 하늘만 사색사색 가득할 뿐 눈이 시릴 뿐 그만 그 하늘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리곤 땀 땀을 닦고 다시 내려오고 싶지 않구려 이 세상 좋다는 것 다 버리고 오늘 눈을 떠 보니 어리석은 자는 저 앞에 혼자 걸뚝이며 두 목발로 걸어오고 간신히 새 한 마리 그늘을 달고 날아가는 백 푸른 하늘 속 비명으로 질러 날아가는 피란 그늘 하나 줄기세포 사이로 걸처럼 거기 그의 작은 발목이 살짝 보였더오.

- ‘나옹’ 전문

육천 대성사 칠월칠석 선남선녀 만남 특별법회 봉행

2007년 8월 19일 오후 2시 선남선녀 인연맺기 칠월칠석 특별법회



- 1) 박영학 전 육천교육장 초청, 부처님 인연법과 만남을 주제로 강의
- 2) 만남을 위한 발원문 낭독
- 3) 커를 만들기 특별이벤트(레크레이션 지도강사 송원자)
- 4) 선남선녀 함께 하는 데이트
- 5) 캄보디아 국제 결혼 설명회
- 6) 참석자 전원 해설 스님 수필집 2,3권 및 테일·영상CD 제공

전국 선남선녀 회원 대상으로 봉행
남자 회원 '꽃바구니' 준비 (여성 회원에 전달)
여자 회원 '항·초' 준비 (부처님전 공양)

회원 가입: 육천대성사 (cafe.daum.net/dasungsa), 육천대성사 홈페이지 (dss.or.kr)

대성사 (043)732-5560

